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588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김동주 • www.krihs.re.kr

인구감소시대,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 증대전략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 1**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2016.7.5.)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
 -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별도의 정책개입이 없다면 인구과소화 현상이 지속되어, 결국 지방의 붕괴 현상까지 초래될 것으로 전망
 - 서울(78.7%), 제주(18.3%)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하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발전거점(관광형) 조성 및 지역발전전략 모색
- 2** 일본은 인구감소·고령화→소비력 저하→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정주인구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체재·교류인구 증대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사업' 등 추진
 - 정주인구 1인 연간소비액 125만 엔=외래관광객 8명 소비액=국내숙박관광객 25명 소비액=국내당일관광객 80명 소비액이라는 실증적 자료에 근거해, 정주인구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치와 체류일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둔 시책을 모색
 - 기존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 지역 내 체재·교류인구 증대를 통해 동등한 소비진작 및 경제활력 증진효과를 도모하고자 2015년부터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사업'을 추진 중
- 3** 복수의 지자체로 구성된 광역관광주유루트 지정 및 관련시책의 공동 추진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자원 활용 및 가치 극대화, 성공사례 창출 및 주변지역 연계·확산 등을 도모
 -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관광주유루트 지정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기존 자원 활용 및 가치 재창출 등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부합하는 '네트워크형 지역발전전략'을 추진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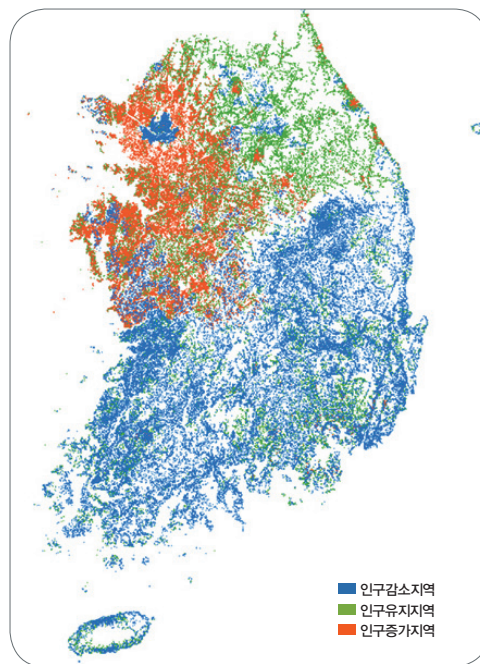
- 1**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 증대] 인구감소시대에 대비하여 서울, 제주 등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치를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발전거점 조성 및 주변지역 연계·확산 촉구
- 2** [발전거점과 주변지역 연계·확산 등 네트워크 강화]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발전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광역관광루트의 설정, 기존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통합브랜드 육성 및 공동 홍보·마케팅 확대 등을 추진
- 3** [범부처 및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차원에서 중앙관계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관광 진흥 및 관련시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중앙-지방 간 관광진흥협력회의 등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1.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지역발전동력의 모색

지난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안권 발전거점(관광형) 조성’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을 논의

-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지방중소도시¹⁾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관광진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
 - 인구과소화지역 전망 결과, 2013년 거주지역 중 2040년에 인구증가지역은 29.8%, 인구유지지역은 17.3%, 인구감소지역은 52.9%로 전망(차미숙 2015)
 - 인구과소화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 별도의 정책개입 없이 현재 추세가 진행될 경우 지방의 붕괴현상을 초래할 우려
- 서울(78.7%), 제주(18.3%)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외래관광객과 국내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하여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역발전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발전거점(관광형)’ 조성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의 모색이 절실

그림 1 2040년 인구과소화지역 전망



분석방법: 통계청의 2040년 장래인구 추정치를 격자단위(500m)로 세분화하여 주거용 건물 유무를 기준으로 거주/비거주지역으로 구분(인구과소화지역: 격자당 5인 이하 거주하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

출처: 차미숙 외 2015.

향후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는 여건변화를 감안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관리 차원에서 지방중소도시에 대해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

- 외국의 경우, 인구감소·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 대비해 지방중소도시의 역할 강화와 도시네트워크 구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논의 중(변필성 외 2015)
 - 독일: ‘모든 지역의 균등한 생활여건 보장’을 위한 공간실현수단으로 메트로폴레기온(Metropolregion) 육성전략 수립
 - 일본: ‘콤팩트(compact) + 네트워크(network)’ 기반의 지방중소도시권 육성과 ‘적당히 좋은 지역·도시(ほどよいまち)’ 구상 등

1) 변필성 외(2015)는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2013년 현재 인구 50만 명 미만인면서 지방자치법 제7조의 시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비수도권소재 시급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는 2013년 현재 43개이며, 2000~2013년간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의 전국 평균변화율(0.64%)에 비해 낮은 0.01%를,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변화율 5.19%에 비해 높은 6.50%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2010년간 근무취업인구의 전국 평균변화율은 1.86%인데 비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0.78%로 일자리 증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변필성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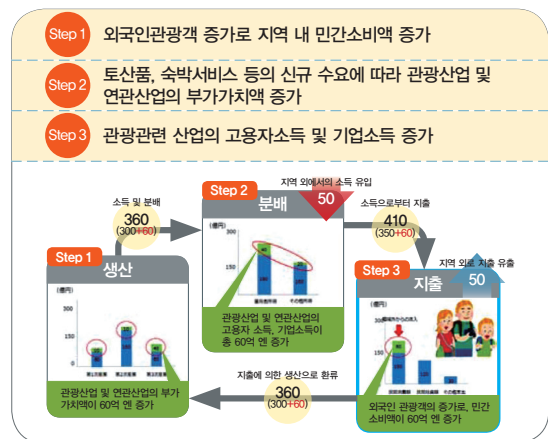
2.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과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 증대

인구감소 대응과 ‘체재·교류인구’ 증대전략

일본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국민소득도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지방에서는 지역경제·사회의 유지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

- 인구감소·고령화 → 소비력 저하 →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하여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 형성을 도모
- 중앙정부는 정보지원, 재정지원, 인력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통의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제분석시스템(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을 개발·운용²⁾

그림 2 지역경제순환지도: 외래관광객 증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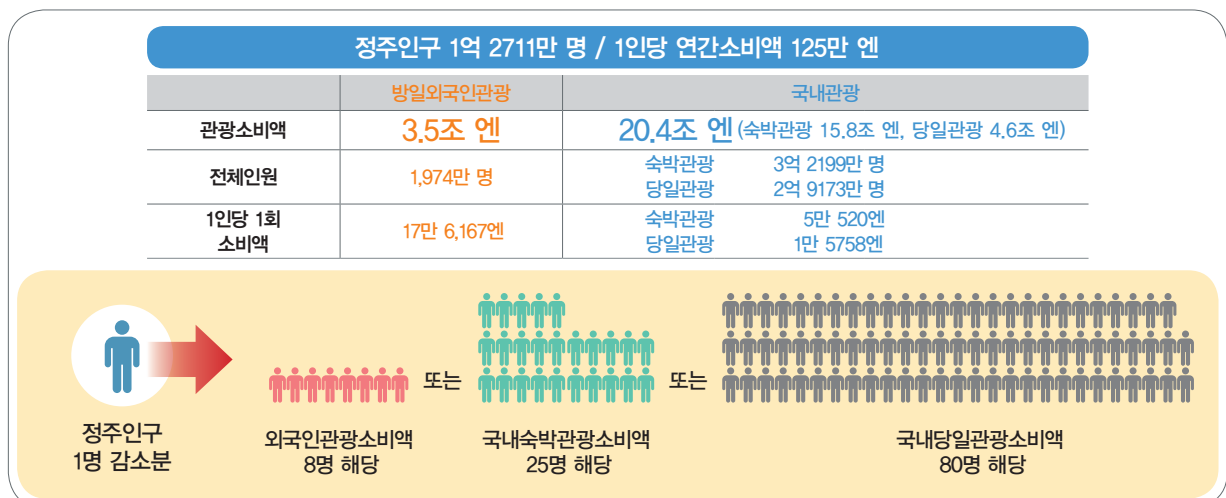


출처: 차미숙 2016.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경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주민 감소 대응전략 및 교류인구 증대전략을 병행 추진

- 정주민의 자연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자화(저출산)대책을, 사회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민 등 인구유입 촉진대책을 추진 중이나,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
- 이에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 증대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를 방지하고자 관광지역 브랜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일본의 경우, 관광이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서비스 수출의 17% 차지

그림 3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 증대의 지역경제효과



출처: 国土交通省 観光廳 観光地域振興課 2016, 2015년 국제조사인구속보집계결과; 2015년 가계조사; 여행·관광소비동향조사자료를 기초로 함.

2) 지역경제순환지도, 산업지도, 농림수산업지도, 관광지도, 인구지도, 지자체 비교지도 등 6개 메뉴를 개발하여 제공 중임.

관광진흥을 통한 ‘체재·교류인구 증대’의 지역경제효과

일본 관광청(2015년)에 의하면, 정주인구 1인당 연간소비액(125만 엔)을 여행객 소비로 환산하면 외국인관광객 8명, 국내숙박관광객 25명, 국내당일관광객 80명의 소비액에 해당

- 2015년 방일외국인관광객의 소비액은 총 3조 4771억 엔으로, 일본의 자동차부품 수출액(3조 4830억 엔)에 근접한 수준임

아베정부는 ‘미래의 일본을 지탱할 관광비전구상회의’를 개최(2015.11)하여 관광선진국 실현을 위한 관광 비전·목표와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2016.3)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자연, 문화, 음식, 기후 등 네 가지를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본을 관광선진국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정립
 - 관광입국 기본이념: 살기 좋고, 방문하기 좋은 관광지역 만들기, ‘체재교류형’ 관광기반 실현
- 관광선진국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3대 목표를 설정. 첫째, 관광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지방창생의 토대로 활용하고, 둘째, 관광산업 혁신 및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가적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며, 셋째, 모든 여행객이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표 1 미래 일본을 지탱할 관광입국 비전과 주요 시책 내용

관광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지방창생의 토대로 활용	관광산업 혁신 및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가적 기간산업으로 육성	모든 여행자가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력있는 공적시설 및 인프라의 과감한 공개 및 개방 •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 국립공원의 브랜드화 • 경관이 우수한 관광자원 보전 및 활용으로 관광지 매력도 향상 • 지방 상점가 등에서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통공예품 육성 • 광역관광주유루트를 세계적 수준으로 개선 • 동북(도호쿠지방)의 관광 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관련 규제·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정비 • 민박서비스 확대 • 산업계 수요에 기초한 관광경영인재 육성 •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다양한 수요대응형 숙박시설 제공 • 관광지 재생 및 활성화 촉제의 지속적인 개최 • 차세대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 • 방일 프로모션의 전략적인 고도화 • 인바운드 관광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시스템 강화 • MICE 유치 촉진 • 비자 발급의 전략적인 완화 • 관광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출입국심사체계 구축 • 민간의 마을만들기 등에 기초한 ‘관광-마을일체 재생’ 추진 • 통신환경의 비약적인 향상을 이용해 누구나 혼자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언어 정보 제공 • 외국인환자의 충분한 수용환경 조성 • 지방공항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와 LCC취항 촉진 • 크루즈선박 수입 확대 • 공공교통 이용환경 개선 • 휴가제도 개선 •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새로운 목표치 설정〉

구분	2020년	2030년
방일외국인관광자수	• 4,000만 명(2015년의 약 2배)	• 6,000만 명(2015년의 약 3배)
방일외국인관광소비액	• 8조 엔(2015년의 2배 이상)	• 15조 엔(2015년의 4배 이상)
지방의 외국인관광자수	• 7,000만 명 숙박(2015년의 약 3배)	• 1억 3,000만 명 숙박(2015년의 약 5배)
외국인 재방문자수	• 2,400만 명(2015년의 약 2배)	• 6,000만 명(2015년의 약 3배)
일본인 국내관광소비액	• 21조 엔(최근 5년간 평균보다 5% 증가)	• 22조 엔(최근 5년간 평균보다 10% 증가)

3. 일본 광역관광주유루트 지정과 운영: '관광진흥'과 '지역 간 연계협력' 촉진

광역관광주유루트 추진시책 개요

주관부처 및 근거법령

- 주관부처: 국토교통성 관광청
- 근거법령: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촉진사업 실시요강(2015년)

추진배경 및 목적

- 외국인관광객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복수의 광역관광주유루트를 지정하고, 관계성청의 시책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지역이 추진하는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³⁾
 - 복수의 지자체에 걸쳐 테마·스토리를 지닌 매력 있는 관광자원을 네트워크화하여 외국인여행객의 체재일수(평균 6~7일)에 부합하는 '광역관광주유루트(관광동선)'를 지정하고, 이를 해외에 홍보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그림 4 광역관광주유루트 대상지역 이미지



출처: 國土交通省 觀光廳 觀光地域振興課 2016.

공간발전전략 및 지정현황

- 광역관광주유루트는 2015년 7개, 2016년 4개 지정 등 전국에 11개 루트가 지정
- 광역관광주유루트는 복수의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관광거점지구와 주요 광역관광루트, 광역관광촉진지역, 주요 게이트웨이 시설로 구성

주요 추진내용, 절차 및 지원

-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사업은 방일외국인여행객을 위해 테마·스토리를 지닌 루트의 형성을 촉진하고, 관광지역만들기 전문가팀을 지정 루트에 파견하여 지도하며, 각 루트가 추구하는 목표 시장의 프로모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마케팅 조사, 계획 수립, 관광자원 빛내기, 관광수용환경 정비, 해외 프로모션, 광역관광주유 투어상품 기획·판매 등을 주요 시책 지원내용으로 하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둠
-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사업의 세부내용⁴⁾을 살펴보면, 광역관광주유루트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기본전략, 종합전략 및 5년간 로드맵 작성) 및 마케팅; 관광수용환경 정비 및 교통접근성 향상(광역관광거점지구 개발세미나

3) 일본 관광입국의 기본이념 및 체재교류형 관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08년 '관광권 정비를 통한 관광여행객의 방문 및 체재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박 3일권의 관광권을 지정하여 지원해오고 있음. 2016년 현재 13개의 관광권(복수의 기초지자체로 구성)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광권 정비의 목표는 '여행자를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회유·유도'하여 여행객을 지리적 확장(숙소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주변지역으로)·시간적 확장(당일여행에서 숙박으로, 1박에서 연박으로, 특정시기 숙박에서 연중숙박으로)·관광객 확장(뜨내기에서 단골손님으로, 도시주민의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유도하는 데 있음.

4) 시코쿠 투어리즘 창조기구의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사업(2015-2016년) 내용임.

개최, 외국인여행자 수용매뉴얼, 관광정보앱 개발, 2차교통을 활용한 주유촉진 실증조사사업); 체재콘텐츠 충실(모델 코스 작성 및 모니터, 콘텐츠 발굴사업); 목표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프로모션(해외여행박람회 출전, 프로모션 동영상 및 팸플릿)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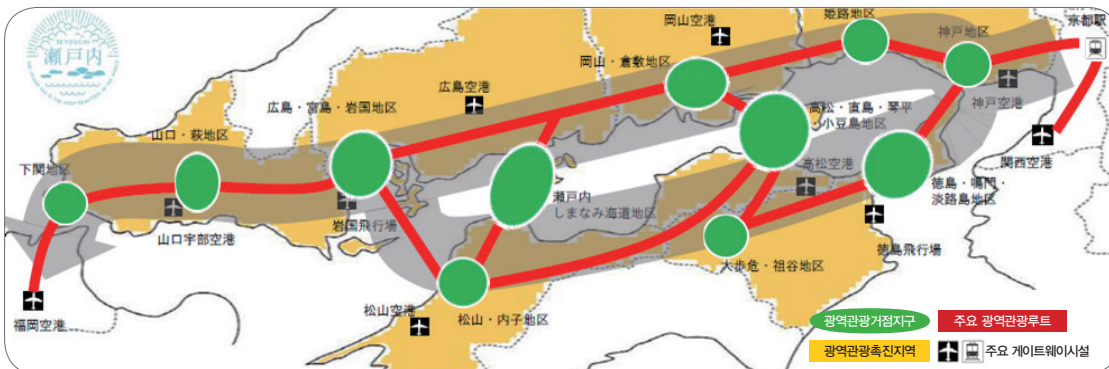
- 국토교통성의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관광촉진지역의 관계자(지자체, 관광관련 단체, 민간사업자 등)로 구성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루트로 지정되면 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선정 시 유리하며,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예산은 별도의 정부예산에 의해 투자
 - 사업관련 활동을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책임주체, 사무국 기능 및 관계자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연계·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광역관광주유루트 운영사례: 세토우치 바다의길, '새로운 서일본 발견 여행'

목표 시장 및 콘셉트

- 목표 시장: 유럽, 미국, 호주, 대만, 동남아시아 등
- 주요 콘셉트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세토우치의 경치와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에 풍부한 일본의 장인정신과 자연 풍경
 - 골든루트(도쿄~오사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본 최고의 간선루트

그림 5 세토우치 바다의길 광역관광주유루트



출처: 香川縣 觀光協會 2016.

주요 추진사업

- 사업계획 수립 및 마케팅: 해외를 대상으로 전략을 수립·실시 및 관리
- 관광객 수용환경 정비 및 교통 접근성 향상
- 체재 콘텐츠 확충: 도착지형 상품예약 플랫폼 구축, 크루즈상품 등 개발
- 목표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 간사이-후쿠오카의 세토우치 주유버스 도입과 이를 활용한 주유프로그램 정보제공, 숙박과 연계한 상품개발·판매 등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는 히로시마현 지사와 민간인(주코쿠경제연합회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음
 - 히로시마현 지사는 세토우치브랜드 추진연락회의의 장이며, 민간인은 세토우치 관광루트 관광객유치촉진 협의회의의 장임
 - 사무국은 히로시마현 내 세토우치 브랜드 추진연락사무국(히로시마현 바다의길 프로젝트팀)이 맡고 있으며, 7개 광역지자체와 2개 경제단체, 12개 민간기업으로 구성

세부 모델코스 개발·홍보

- 2015년 지정된 전국 7개 광역관광주유루트 형성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보유한 관광자원을 결합한 세부 모델코스를 개발하여 홍보
 - 모델코스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여행회사 등으로 하여금 상품개발 및 외국인여행객의 여행플랜을 수립하는 데 활용토록 하며, 단체·개인여행 등 모든 여행수요를 진작시켜 방일외국인여행객의 지방유치를 촉진⁵⁾
 - 모델코스에는 주요 콘셉트, 주요 대상시장 및 관광자원, 코스 도면 및 일정 예시(코스 접속교통수단, 숙박 및 식사, 관광지 및 관광자원 등 볼거리, 코스 내 교통활용수단 및 소요시간) 등을 포함

표 2 세토우치 바다의길 광역관광주유루트 내 모델코스 개요

코스명	콘셉트	목표 시장	여정 (예시)
신골든루트 : 새로운 서일본 발견의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세토우치 경치와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에 풍부한 일본의 장인정신과 자연풍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중점시장: 대만 • 중점시장: 중국, 홍콩, 태국 	
역사와 예술이 만나는 '미(美)의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토우치에 풍부한 역사·전통미와 현대 예술의 체험 •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해와 계곡의 아름다운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중점시장: 북미 • 중점시장: 유럽, 호주, 한국 	
하늘과 섬, 바다에 동화되는 사이클 루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토우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 • 세토우치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사이클링(렌트 사이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중점시장: 대만 • 중점시장: 중국, 홍콩, 태국 	

출처: 香川縣 觀光協會 2016.

5) 현재 7개 루트(2015년 지정)에 20개의 모델코스가 수립되어 있음.

4. 시사점

인구감소시대에 대응,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진흥으로 지역 내 '체재·교류인구' 증대방안 강구

- 인구의 자연적·사회적 감소에 대한 대응 노력과 함께 정주인구 감소분을 상쇄*시키기 위한 체재·교류 촉진형 관광진흥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

* 일본사례: 정주인구 1인당 연간소비액(125만 엔)=외국여행객 8명 관광소비액=국내숙박여행객 25명 관광소비액=국내당일여행객 80명 관광소비액

- 서울(78.7%), 제주(18.3%)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 중국, 일본 등 외국인관광객의 지방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발전거점(관광형) 조성 및 주변지역 연계·확산 전략 필요

지역관광진흥 성공사례를 토대로 거점지역화 및 주변지역 연계·확산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발전전략 추진

- 복수의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브랜드화,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복수의 지자체가 '광역관광주유루트'로 지정되면서 공동브랜드 육성 및 대외 홍보·마케팅 강화
 - 일본 카가와현의 경우,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트리에날레'*를 기획하여 '예술섬' 나옴시마(直島)의 성공사례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을 추진하여 축제기간 중 내방객이 급증하고 주변 섬지역의 인구증가와 폐교의 재개교** 등 긍정적인 지역경제효과가 발생

*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2010년부터 3년 주기로 '현대예술'을 주제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나옴시마를 중심으로 7개 주변 섬에서 7~10월간 105일간 축제가 개최되어 내방객수가 약 94만 명, 2013년에는 약 107만 명에 이르는 성과를 보였으며, 금년 개최 중인 제3회 국제예술제는 나옴시마를 중심으로 12개 주변섬에서 봄(3~4월), 여름(7~9월), 가을(10~11월) 등 세 시즌으로 나누어 총 108일간에 걸쳐 추진 중

** 나옴시마 성공사례(Best Practice)와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개최이후, 주변의 쇼도시마는 인구가 당초 3만 명이었는데 2015년 한 해 동안 300 명이 증가하였으며, 카가와현 전체로는 1천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였음

- 지역별 특성 있는 자원 발굴·연계 및 잠재·미활용되고 있는 지역관광자원의 가치를 재창출(어메니티화)하는 한편, 지역브랜드 육성 및 홍보·마케팅을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중요

지역관광진흥 촉진을 위해 범부처 협업시스템 운영 및 중앙-지방 간 관광진흥협력체계를 구축·운영

- 지역관광진흥을 촉진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중앙관계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발전 관련 시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지방 간 관광진흥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을 통해 협력기반을 강화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15. 미래국토발전전략 수립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변필성 외, 2015.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차미숙 외, 2015.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 국토정책Brief 525호, 안양: 국토연구원.

차미숙, 2016.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 국토정책Brief 555호, 안양: 국토연구원.

國土交通省 観光廳 観光地域振興課, 2016. 観光圏 및 廣域観光周遊ルート(説明資料), 東京: 國土交通省 観光廳 観光地域振興課.

香川縣 観光協會, 2016. 香川せとうちアート観光圏: 観光地域ブランド戦略(説明資料), 四國: 香川縣 観光協會.

四國シリーズ創造機構, 2016. 四國地域 廣域観光周遊ルート事例(説明資料), 四國: 四國シリーズ創造機構.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mscha@krihs.re.kr, 031-380-0190)



KRIHS 국토연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홈페이지 www.krihs.re.kr
전화 031-380-0114 팩스 031-380-0470